**[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제너럴리스트]**

저는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가진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하는 주니어 기획자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생이 되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공을 선택할 때도 IT 융합 학과인 글로벌미디어학부를 선택하였습니다. 실제 전공 수업을 수강하면서 C++, C#(Unity)과 Maya를 배우고 직접 다루면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3D 디자인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목들에 많은 재미를 느꼈었고, 과목에 대한 흥미는 곧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과 그래픽 분야 이외에도 광고, 빅데이터, VR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창의적인 광고 영상들을 보면서 광고와 마케팅에 관심이 생겼었고, 2년 동안 광고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의 경우 학과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학교의 통계 수업 수강 및 대외 활동을 하였습니다. VR 은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 직접 VR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들에 대한 흥미와 경험에만 그치지 않고 일련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광고 동아리를 하면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광고제를 주최하였고, 빅데이터 공모전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 VR콘텐츠를 졸업 전시에 활용하여 우수상 수상 및 인턴의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4년간의 대학 생활은 다른 분야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전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을 앞으로의 진로에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매우 원활하게 해주었고,이러한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기획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훌륭한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주니어 기획자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